

구례자연드림치유단지 조성 재추진

2023년 사업 중단 통보 아이쿱생협
5일 구례군수 만나 재추진 협약
2170억 들여 치유 병원 등 건립

무산 위기에 놓였던 '구례자연드림치유힐링단지조성사업'(광주일보 2024년11월5일자 14면 보도)이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1일 구례군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에 따르면 오는 5일 김순호 구례군수와 신미경 아이쿱생협 이사장이 만나 재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구례자연드림치유힐링단지조성사업은 지난 2023년 2월27일 아이쿱생협 김정희 당시 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순호 구례군수가 투자 협약을 하고 2027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2643억원(민자 2170억원, 도·군비 473억원)을 들여 53만3736㎡에 향암 농식품 제조공장과 500병상 규모의 치유 병원, 휴양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투자협약에도 불구하고 아이쿱생협이 1년 반이나 지난 2024년 9월10일 구례군의 사업 추진 의지와 행정력 등을 문제 삼아 사업 중단을 구례군에 통지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더구나 구례군은 35억원의 예산을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상태였고 중단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4억여원을 더 들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대안 찾기에 애쓰고 있었다.

이 같은 답보상태에서 아이쿱생협 역시 지리산 산록지인 구례군 산동면에 먹는 샘물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힐링 치유사업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마침내 구례군과 아이쿱생협의 상호 공감대가 다시 형성됨으로써 재추진 협약을 끌어내게 됐다.
이에 대해 구례군민들은 재협약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난 중단 사태로 인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60대의 구례 주민 A씨는 "사업이 재개 되며 어서 다행이지만 다시는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과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장흥 친환경 김, 태국 시장 진출...연간 1천만 달러 수출

현지 식품·유통 기업과 양해각서

장흥산 친환경 김이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장흥군은 최근 장흥무산김㈜과 태국 식품기업 텔리케익, 현지 유통·협력기관인 BKK와 함께 장흥산 김 제품의 수출·사업 협력을 위한 3자 간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들은 마른김과 조미김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며, 연간 약 60만 속(1속당 100매) 규모의 장흥산 친환경 김을 공급하고, 연간 약 600만달러 규모의 구매를 목표로 한다.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는 향후 세부 조건 협상을 거쳐 별도의 수출·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장흥 김 제품의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태국 식품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유통 경쟁력을 갖춘 현지 업체와의 협력은 장흥김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는 물론, K-푸드와 무산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무산김㈜은 또 태국 김스낵 전문기업과 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태국 현지 두 업체와의 협력으로 연간



약 150만 속,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김의 우수한 품질 경쟁력이 해외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태

국을 교두보로 동남아 시장에서 장흥김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수산업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해남군,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고위험군 어르신 집중 관리

해남군이 계속되는 한파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겨울철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해남종합병원과 해남우리종합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 2곳과 협력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등록 치매환자 2456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과 전화 모니터링, 보호자 안내 등을 실시하며 겨울철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홀몸 어르신이나 돌봄 취약 가구 256명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전담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방한 마스크와 수면 바지 등 방한 물품을 지원했다.
또 타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에게는 매일 안부 전화와 주말 방문 등을 안내하고, 한파 시 주의사

항과 응급상황 대응 요령을 전달해 가정 내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회감지기 143개와 배회 인식표 1832개를 지원하는 등 조기 발견과 실종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이상 징후 발생 시 보건기관과 경찰서, 소방서, 지역 돌봄 자원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군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기온이 낮은 날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하고, 체온 유지와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실내 온·습도 관리, 방한용품 착용 등 예방수칙을 꾸준히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청소년수련관 스포츠스태킹 프로그램.

무안군청소년수련관, 겨울방학 체험형 프로그램

춤·베이킹·뜨개질 등 운영

무안군청소년수련관이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주 화·수·목요일 '슬기로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슬기로운 겨울방학은 방송댄스, 스포츠스태킹, 베이킹, 뜨개질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무안군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중 과도한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체험 중심의 여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조영희 무안군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힐링의 섬으로 오세요...완도 치유페이 오픈

온라인 신청...최대 10만원 지원

완도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힐링하기 좋은 곳, 치유의 섬 완도'를 슬로건으로 완도치유페이가 관광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는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이 완도를 방문해 숙박, 식당, 카페 등에서 경비를 사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도치유페이(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를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인센티브 사업이다.
'완도치유페이'는 상반기 2월부터 4월,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2차례 운영한다.
완도치유페이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완도치유

페이 누리집을 통해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3만원, 20만원 이상은 6만원, 30만원 이상은 9만원 등이다. 청산도와 보길도 등 섬지역을 여행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완도치유페이 쿠폰은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체험장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처음 완도치유페이를 시행한 결과 1만5477개 팀이 신청해 4만3335명이 혜택을 받았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1박하면 혜택 2배...나주시 '1박 2득' 관광 시동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를 앞둔 나주시가 체류형 관광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명칭부터 직관적인 숙박 인센티브 정책 '나주 1박 2득'을 본격화한다.
나주시는 최근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 2득 사업' 취지와 운영 방식, 인센티브 지급 절차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일치기 관광에 머물던 방문객을 '머무는 소비자'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신청·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와 숙박업소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안내 문구 개선, 확인 절차 간소화 등 실무적인 제안이 쏟아졌고, 나주시는 이를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접점이 숙박업소인 만큼, 친절한 응대와 정확한 사업 안내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주 1박 2득'은 나주에 1박 이상 체류한 관광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숙박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음식·쇼핑·체험 등 연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관광-소비 연결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